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및 재정건전성 분석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안옥진 분석관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 기획재정부는 340개 공공기관¹⁾의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를 공시 (2020.4.29)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2019회계연도 자산총액은 861.1조원, 부채총액은 525.1조원으로 2018년 대비 자산은 32.8조원, 부채는 21.4조원 증가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산, 부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발전설비 투자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채권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자산 건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에 주로 기인
- 총 당기순이익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0.6조원을 기록
 -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1.2조원 및 2019년 △2.3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9조원과 △3.6조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표 1]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2015~2019)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781.1	799.8	810.1	828.3	861.1	32.8	4.0
부채	504.7	500.4	495.2	503.7	525.1	21.4	4.2
당기순이익	12.5	15.4	7.2	0.7	0.6	△0.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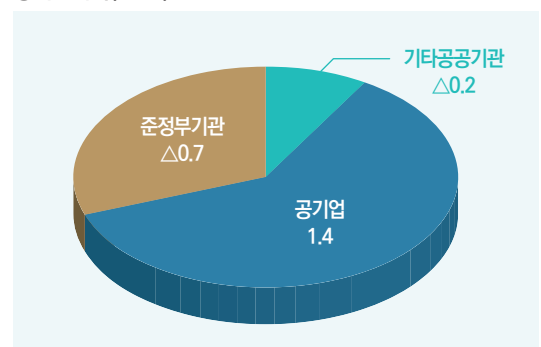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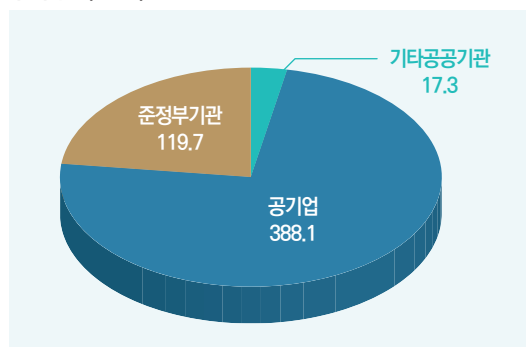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0.4.29.

부채규모(2019)

(단위: 조원)

당기순이익(2019)

(단위: 조원)



1)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으로 총 340개 기관을 지정(2019년 대비 1개 기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를 공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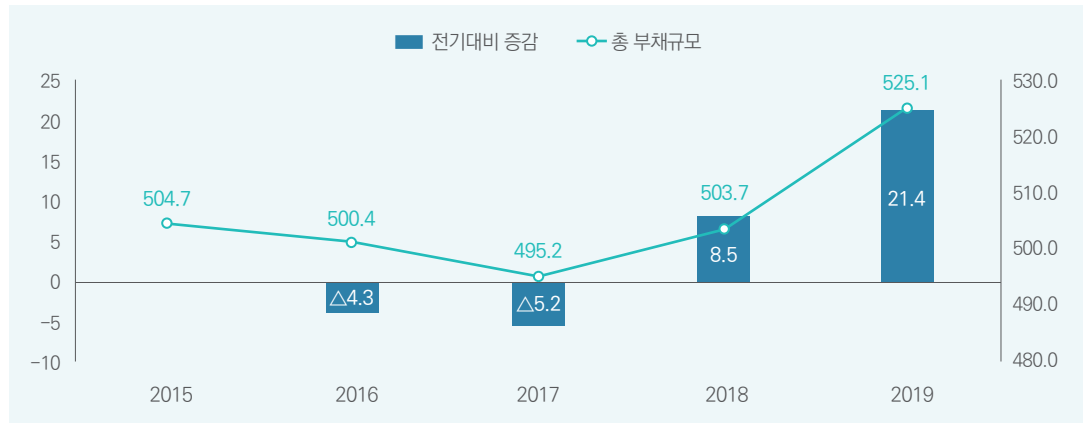
공공기관 부채규모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

●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GDP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의 증가

-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GDP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2019년 말 부채 총액은 525.1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1.4조원(4.2%)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총 부채 증가 규모도 2018년 8.5조원에서 2019년 21.4조원으로 상승

[그림 1] 연도별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 및 전기 대비 증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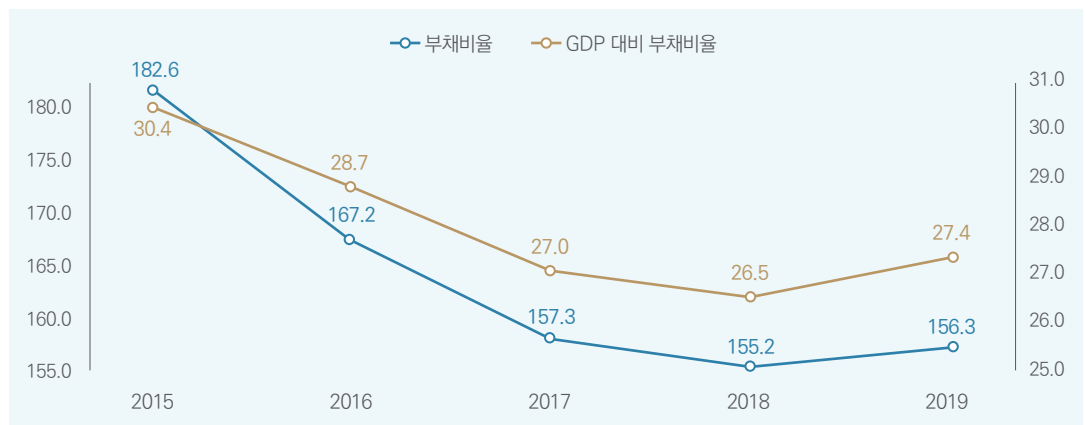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 또한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p 상승하였으며,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 대비 0.9%p 상승

[그림 2] 연도별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 및 GDP 대비 부채비율

(단위: %)



주: 상기 GDP 대비 부채비율 산정 시 GDP는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지표를 사용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9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 증가 14.6조원은 전력사용량 감소 등에 따른 당기순 손실(△2.3조원) 발생 및 2018년 대비 투자비 증가(2.4조원) 등에 따른 부족자금의 차입금 조달 6.8조원, 리스 회계 기준 개정 등에 따른 리스부채 증가 4.8조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총당부채(원자력 발전소 사후 해체·복구 및 사용후 핵연료처리) 2.9조원 증가 등에 기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 증가 3.3조원은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시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주로 기인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결산에서 제외²⁾ 된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BIS비율 감소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19년말 부채 총계는 608.2조원으로 2018년 대비 37.2조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3개 기관 모두 전기 대비 감소하여 총 합계가 2.33조원으로, 전기에 비해 0.83조원 감소

[표 2]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2017~2019)

(단위: 조원)

	부채				당기순이익			
	2017	2018(A)	2019(B)	증감 (C=B-A)	2017	2018(A)	2019(B)	증감 (C=B-A)
한국산업은행	230.2	225.8	233.8	8.0	0.56	0.71	0.28	△0.43
한국수출입은행	72.0	76.8	79.1	2.3	0.02	0.69	0.43	△0.26
중소기업은행	254.3	268.4	295.3	26.9	1.51	1.76	1.61	△0.15
합계	556.5	571.0	608.2	37.2	2.09	3.16	2.33	△0.83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19년 말 평균 BIS 비율은 14.31%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한국산업은행 등 감소 추세로 전환
- 2019년 기준으로 일반은행 평균 BIS비율에 비해 1.59%p 낮으며, 해당 차이도 증가

[표 3]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BIS 비율 현황 (2015~2019)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한국산업은행	14.18	14.86	15.25	14.80	13.97	△0.83
한국수출입은행	10.04	10.77	12.90	14.42	14.48	0.06
중소기업은행	12.51	13.13	14.20	14.50	14.47	△0.03
3개 은행 평균 (a)	12.24	12.92	14.12	14.57	14.31	△0.26
일반은행 평균 (b)	14.69	15.77	15.84	15.90	15.90	0.00
차이 (a-b)	△2.45	△2.85	△1.72	△1.33	△1.59	-

주: 1.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정부는 2016.6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하여 목표 BIS비율을 한국산업은행은 13%, 한국수출입은행은 10.5%로 산정한 바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19년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2020.3.19.)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³⁾이 있으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필요

2)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부채비율이 아닌 BIS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 산정 시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있음

3)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거나(임의적 손실보전), 보전하여야(의무적 손실보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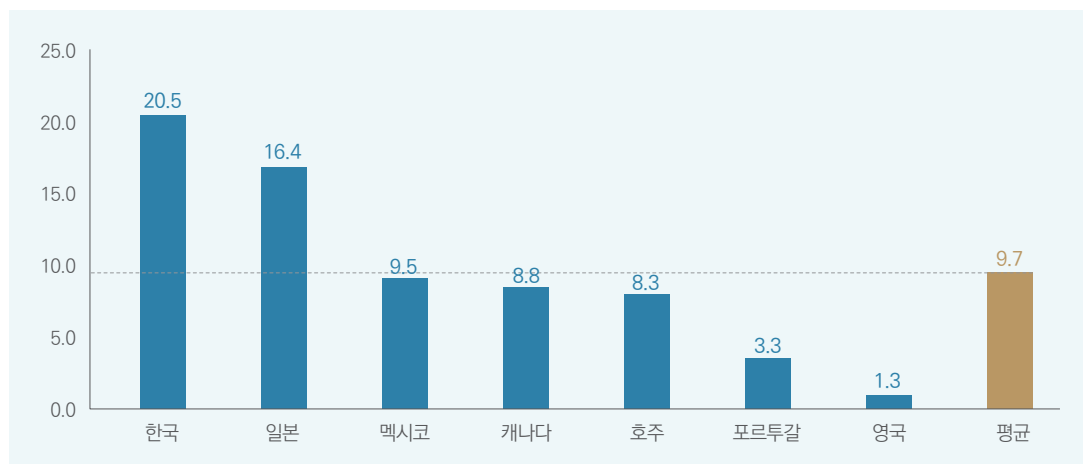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 국가 재정건전성 분석 시 국가채무(D1)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추이
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국가채무(D1, 2018년 680.5조원)외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D2, 2018년 759.7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 2018년 1,078.0조원)고려 필요
 - 국가채무(D1)의 GDP대비 비율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38.0% 수준이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으로 인한 2020년 추정 비율은 43.5% 수준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⁵⁾ 부채 비중은 2013년 28.4%에서 2018년 20.5%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관리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⁶⁾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시 포함되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분석
 -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2018년 기준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산정하고 있는 OECD 7개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평균값(9.7%)에 비해서도 10.8%p 높은 수준임

[그림 3] 주요국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2018)

(단위: %)



자료: IMF and World Bank,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Database"

4) 국가부채 통계는 포괄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나뉨. 국가채무(D1)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함.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임

유형	2018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680.5조원 (35.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759.7조원 (40.1%)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078.0조원 (56.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보도자료, 2019.12.26.

5)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대상인 비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와는 일부 차이가 있음. 즉, 상기 비금융공기업은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을 모두 고려하며, 이 중 시장성 여부와 금융·비금융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분류·포함여부를 결정함. 2018년 기준으로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대부분(91.3%)은 중앙부문 공공기관의 부채가 차지하고 있음

6) 기획재정부,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2018년 재정정책 보고서)」, 2018.11.